



이달의 한국양록

제4회

임원·지회장·사무장 연수회 성료



본회는 지난 11월12일부터 13일 양일간 경북 경주 소재 경주온천관광호텔에서 제 4회 임원·지회장·사무장 연수회를 갖고 수입녹용 불법유통 척결 결의대회, 양록관련 특강, 협회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 다채로운 시간을 마련했다.

김수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업계가

어려울수록 업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”고 전제한 후 “협회 모든 임원들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양록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달라”고 주문했다.

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축산신문 윤봉중 사장이 ‘한국 축산업과 단체의 역할, 축산지도자의 자세’란 주제로, 협회 배



소식 부회장이 ‘한국양록 당면과제와 예 측가능한 미래의 양록업’을, 대체의학 을 연구하는 황의익씨가 ‘대체의학 측면 에서 본 녹용의 가치와 활용’ 이란 주제 로 각각 40여분에 걸쳐 특강을 실시, 이 날 행사에 참석한 90여 양록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.

한편 본회는 이번 연수회에서 수입녹용

불법유통 결의대회를 갖고 저질 저가 외 국산 녹용이 국산으로 불법유통되는 것 을 철저히 감시하여 근절시킬 것을 결 의했다. 더불어 본회는 수입녹용 불법 유통 취급자를 적발하는데 공로가 있는 양록인 권준오 외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. ■
한국양록